

[우수작]

끔찍한 신데렐라를 보는 폭력적인 시선
- sbs 발리에서 생긴 일

정 혜 인

끔찍한 남국(南國)의 신데렐라

멋진 휴양지에서 만난, 버릇없는 재벌가 도련님과 돈이면 뭐든지 하는 초라한 관광 가이드의 굴곡 많은 사랑. 여기까지만 보면 영락없는 할리퀸 로맨스요, 안방극장의 단골메뉴인 신데렐라 스토리의 전형처럼 보인다. 아니, 여기에 더해지는 뼈까뻣한 옷차림과 ‘재벌들의 유흥’ 과 같은 눈요기 거리는 식상한 신데렐라 스토리의 표본이라고 혀를 찼만했다. 하지만 소프트 캔디처럼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꿈들을 전해주는 일반적인(!) 신데렐라 드라마와는 달랐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고나면 찝찝하게 기분이 나빠지고 분명 연애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주인공들이 그리 발랄해보이지는 않는, 이상한 드라마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신데렐라는 끝내 행복하지도, 왕자의 품에 안겨 웃지도 못했다. 오히려 초반부터 작살나게 쥐어터지더니 끝내 모양새 나쁘게 죽임을 당한다. 안 그래도 초라한 신데렐라가 불행하기까지 하다. 사상 최고로 끔찍한 신데렐라가 발리에 있다.

분명 <발리에서 생긴 일>의 이수정이라는 캐릭터는 자신보다 신분(물질적)이 높은 정재민에게 선택되어 신분상승을 꾀한다는 점에서 신데렐라의 공식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나 발리의 신데렐라가 끔찍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신데렐라이야기는 좃대 없고 불쌍하게 시작하여 끝내는 왕자와 함께 행복해지는 구도가 된다. 발리에서 생긴 일의 이수정은 여느 신데렐라들처럼 불쌍했지만 고고한 자존심 따윈 없고 왕자에게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청순하게 울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취직자리 하나를 구하기 위해 있는 치장 없는 치장 하면서 “일자리가 필요해요” 라고 솔직한 말을 왕자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데렐라는 무엄하게도 왕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 왕자에게 처형된다.

깨진 유리구두는 신선하나, 아름답진 않다.

물론 ‘신데렐라의 공식’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거나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식상해진 시청자들에게는 신데렐라의 공식을 가끔씩 타파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온다. <발리에서 생긴 일>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여느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남자 둘, 여자 하나의 이야기로 출발했고 왕자는 물질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현신적이었지만 결말은 달랐기 때문이었다. 신데렐라를 죽인, 그리고 우리들의 백마 탄 왕자를 죽인 드라마는 흔치 않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데렐라 이야기가 뒤틀리고 치정극으로 변모한 것은 기획의도와도 부합하는 부분이었다. 발리에서 생긴 일의 기획 의도는 분명 “돈만이 유일한 가치로 남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짚어본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재벌로 대표되는 상류층이 누리는 생활이나 돈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는 인물들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돈 많은 이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랑하고 달콤한 사랑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인 것이다. 오히려 왕자가 신데렐라가 끝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리얼리티 있는 판단이며 선택이지 않던가.

높은 시청률과 젊은 인기스타를 이용해 사람들의 뒤틀린 욕망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만으로도 <발리에서 생긴 일>은 높이 살만 하다. 물론 높은 시청률과 젊은 인기스타가 드라마의 리얼리티나 높은 표현력에 무조건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젊은 인기스타는 표현력이 부족해도 말끔한 마스크로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경우가 종종(자주) 있으며 높은 시청률은 선정적이고 질이 낮은 트렌디 드라마에 자주 따라붙는 수식어로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은 <발리에서 생긴 일>이 트렌디 드라마들 중 “높이 살만한” 드라마였지 “좋은” 드라마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벗어날 수 없는 선정과 폭력의 굴레

우선적으로 말해야 할 것은 이 드라마 또한 방송비평의 단골 주제인 선정성에 대

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드라마가, 특히 ‘발리’ 처럼 욕망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순수하기 짝이 없는 설정들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선정성을 사용했다는 것 또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캐스팅이다. 이 드라마의 주연배우들의 팬 층이 연령이 다소 낮은, 인기 스타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드라마의 선정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선정성과 더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요즘 드라마의 단골메뉴인 폭력성이다. 극중에서 수정의 오빠가 쓴 사채로 인해 폭력배들에게 수정의 오빠나 수정이 구타를 당하고 그로 인해 수정이 억지로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는 장면은 물론이거니와 재민과 인육이 다투는 장면에서도 여지없이 폭력은 등장한다. 장면 장면을 나열하지 않아도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시청자로 하여금 “(여주인공인)이수정이 그렇게 맞아도 썩 인물인가” 라는 의문을 저절로 들게 할 만큼 많이 맞는다. 마음에 안 들거나, 술을 좀 마셨거나, 상대방이 좀 모질게 굴었을 때 이 드라마의 해결방법은 “가볍게 때려주는 것” 이었다. 이처럼 쓸 데 없이 많이 등장하는 물리적인 폭력은 드라마를 볼 그 당시에는 극적인 긴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할지는 몰라도 보고 나면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나를 반문하게 된다.

선정성과 폭력성이라는 면에서 온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며 화제가 되었던 결말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정재민이 자신을 버리고 도주해버린 여인과 자신의 회사를 망하게 한 남자를 살해하는 장면은 드라마에서 간간히 보여주던 선정성과 폭력성을 응집해서 보여준다. 그도 그럴 것이 재민이 인육과 수정을 살해하는 장소는 둘이 관계를 가진 침실이었고 살해 도구는 권총이었다. 화면은 권총에 맞아 피가 낭자한 채로 죽어가는 남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피” 는 보여주지 않지만 재민도 역시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 다분히 새롭긴 했으나 썩 매끄럽다거나 좋았다고 말할 수 없는, 폭력과 선정으로 얼룩진 한 장면이었다.

왜곡으로 얼룩진 드라마의 시각

굳이 어퍼어퍼한 장면이 선정적이었다, 어퍼어퍼한 장면이 폭력적이었다를 지적하지 않아도 드라마 전체를 놓고 볼 때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이 드라마가 매우 폭력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선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사소하게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시선이라는 문제는 결국 드라마가 담아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미하므로 결코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 남자 없인 못사는 여자들- 여성을 향한 시선

우선 이 드라마에서 그리는 여성은 ‘남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들이다. 주인공인 이수정은 발리에 정재민이 왔다는 소리에 다 깨진 파우더로 치장을 하면서 어떻게라도 잘 보이려고 애쓴다. 심지어 동침을 요구하는 재민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똑똑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그러질 뿐이다. 발리에서 사장인 조상배에게 돈을 뜯기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수정이 먼저 찾아간 곳은 정재민의 사무실이였다. 그리고 약간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정재민의 뺨으로 회사에 취직하게 되며,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재민의 약혼녀인 영주의 경우도 별반 다를 것 없다. 영주는 처음부터 도도하고 당찬 캐릭터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들여다볼수록 그렇지 않다. 첫사랑이었던 인육을 잊지 못해 가난한 인육을 버려놓고도 다시 찾아오는 영주는 딱 첫 장면까지만 당차다. 뒤로 갈수록 능력 있고 재력 있는 여성인 영주는 인육에 의해, 재민에 의해 의존적인 여성으로 변해간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쟁취하지도 못하는 가장 나약한 캐릭터로 그려지는 것이다. 남자 때문에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며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여자들을 보고 있으면 여성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의 주체성마저 없어 보인다.

비단 주인공인 두 여자만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남자에게 잘 보이려 안달이 난, 혹은 안 그런척 해도 남자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려진다. 일례로 감초 역할로 나오는 수정의 친구 미희는 인육에게 잘 보이려고 발버둥치며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캐릭터이다. 배우 지망생인 미희가 출연하는 영화는 “불타는 육체” 와 같은 에로영화이고 생계수단은 노래방에서 남자들과 놀아주는 노래방 도우미이다. 이처럼 이 드라마에서는 안내데스크 직원도, 수군거리는 여자들도 모두 남자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주로 두 남자를 이야기하는 주변사람으로 등장한다. 이는 이 드라마에 똑같이 등장하는 남자들이 모두 여자

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분명 이 드라마가 왜곡된 시각으로 여성을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가진 게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빈곤층을 향한 시선

이 드라마가 행하고 있는 시선의 폭력은 “여성”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발리에서 생긴 일>이 그리고 있는 “빈곤층”에 관한 문제이다. 신데렐라 적 설정엔 어쩔 수 없이 왕자에 대비되게 가난하고 초라한 신데렐라가 등장해야한다. 이수정은 그런 설정에 맞추어 무얼 해도 왕자의 행색과 대비되게 초라하고 궁상맞다. 여주인공이나 주변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설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모두 비틀어졌다는 데에 있다.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 이수정으로 대표되는 빈곤층들은 모조리 멍청하거나, 비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열하게 묘사된다. 얼토당토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떼먹는 조상배나, 사체를 쓰다가 여동생을 업소에까지 팔아먹는 수정의 오빠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 가난하지만 지성적인 인물로 나오는 인육마저 끝내는 회사 돈을 횡령하여 한국을 떠난다. 이 드라마에서 가난한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또 이 드라마에서는 돈이 없는 자가 돈 있는 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굴복하는 장면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돈이 곧 권력임을 암시하는 기제가 드라마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다. 돈을 빼고는 인격적으로 별로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돈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드라마 속의 사람들은 잘도 부자에게 머리를 숙인다.

3) 돈이 바로 힘이다 - 부유층을 바라보는 시선

부유층이라고 해도 별 다를 것은 없다. 이 드라마에서 “정승” 같이 돈을 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없다. 드라마 상에서 부유층이 빈곤층을 도와주는 것은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행위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드라마의 단골 대사인 “먹고 떨어지라”는 험박 섞인 돈이다. 상류층은 자신이 가진 것을 치장하고 남의 것을 시기하기에 바쁜 사람들이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에 있어서 형제도 없는, 비열한 캐릭터(재민의 형)마저 존재한다. 하루에 술을 마시는 데 돈을 수없이 쓰고 술김에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발리에 호텔까지 사준다. 비틀린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빈곤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명청해 보인다. 상류층과 빈곤층 사이의 중산층이란 아예 등장하지 않는 이 드라마에서 정상적인 사람을 찾는다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문제는 가진 자의 특권의식과 가난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시켜서 서로를 “저들은 나와 다른 부류” 라고 구분 짓는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밥 먹는 씬 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대사는 “정재민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라는 말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어딘가 부족한 놈” 이라는 것이다. 이는 안 그래도 부각된 박탈감과 빈부격차를 더 느끼게 만드는, 특권층을 빈곤층의 위에 두는 것이다.

4) 마음만 주지 않으면 된다? -성(性)을 보는 시선

<발리에서 생긴 일>의 특집프로그램에서 명대사 명장면을 꼽으면 이수정이 정재민에게 “마음까지 주지 않는 것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라는 장면과 대사가 꼭 들어간다.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장면은 정재민과 이수정이 잠자리를 함께하는 장면이다. 이런 장면처럼 이 드라마에서는 사랑을 하지 않아도 돈을 쥐고 있는 쪽에게 성은 줄 수 있다는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다. <발리에서 생긴 일>을 보고 있으면 성행위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게 된다. 성에서 우위를 지닌 것은 돈을 가진 쪽이며 그래서 악력으로 성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도 권력이 약한 쪽은 반항하지 않는다.

마음이 성(性)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면 자존심을 지킨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성은 생명과 같이 취급해도 무방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 드라마에서 하는 성행위는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갖는 일방적인 사랑을 내보이는 소유권 증명” 의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드라마가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쾌락을 위한 성행위였다면 오히려 성에 까지 침범한 권력을 비판하지 않아도 될 듯했다.

모든 드라마는 전혀 새로울 수 없다. 그러나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시도는 가능하다. 새로운 시도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줄 뿐 아니라 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발리에서 생긴 일은 신데렐라가

마치며- 새로움을 위한 변명

성공하는 스토리로 점철된 재벌드라마라는 틀 안에서 그 내용면으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드라마였다. <발리에서 생긴 일>이 옳지 못한 시선으로 가득 찬 얼룩진 드라마였더라도 트렌디 드라마의 다른 방향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한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발리에서 생긴 일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는 높은 시청률을 위한 이전 드라마의 성공공식을 복제한 후 시청자들에게 차별을 강조하는 안일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인간성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가슴 빠근한 드라마가 진짜 드라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대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인 드라마만이 좋은 드라마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악인들만 나와도 드라마는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으며 색다른 교훈을 시청자들에게 던져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드라마에 흐르는 시각이나 설정이 시청자들에게 반감을 사거나 박탈감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언젠가 연예프로그램에서 <발리에서 생긴 일>의 시청률이 40%가 넘었다고 행복해하던 출연진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시청률의 고지대를 점령했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다. 하지만 높은 시청률로 좋아하기 이전에 진정 자신들의 드라마가 “자랑스럽고 좋은” 지에 대한 고찰이 제작자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